flatMap의 속사정

김나헌

흔히 봐왔던 flatMap

```
// [2, 3, 4, 5]
Array(1, 3).flatMap { n =>
    Array(n+1, n+2)
}
```

하지만 flatMap은 다양하다.

```
Option(nullable).flatMap { v =>
    Some(v + another)
}
```

Category Theory의 아이들

```
trait Functor[T] {
  def map[S](f: T => S): Functor[S]
}

trait Monad[T] extends Functor[T] {
  def flatMap[S](f: T => Monad[S]): Monad[S]
}
```

Container 또는 Context

```
interface
    type T as param
    => return type S

trait Functor[T] {
    def map[S] (f: T => S): Functor[S]
}

trait Monad[T] extends Functor[T] {
    def flatMap[S] (f: T => Monad[S]): Monad[S]
}
```

- * T는 Monad인 어떤 타입. Array, Option, Try, ... 즉 Monad는 모든 가능한 T의 공통적인 속성
- * 현재 Context로부터 <mark>다음 Context</mark>를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 명령문 사이의 상태 전파의 순수 함수적 형태



flatMap의 속사정을 이해한다면, 이제

#16 by Runar on July 28, 2010 - 7:14 pm



What is this, amateur hour? Flatmap that shit.

명령형 코드를 더 우아하고 안전하게

```
Option(nullable).flatMap {
  v => Some(v + another)
}
```

합성, 혹은 벽돌쌓기

고수준 언어의 핵심은 그것이 당신에게 더 많은 추상화, 즉 더 커다란 벽돌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이 벽을 쌓을 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이다. 그래서 언어가 더 강력 할수록, 프로그램은 더 짧아진다. (글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요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.)

- 해커와 화가, 폴 그레이엄

추상 위의 추상

추상 리팩토링 부터 공통화, 라이브러리, 플랫폼 까지… 수많은 코드와 개발자가 지향하는 방향

함수형 패러다임을 학습한다는 것 람다, 함수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**추상을 내제화하는 과정**

